



아르헨티나 기업과의 화상 비즈니스 미팅 안내

인구 4,500만 명의 내수시장과 광대한 영토를 가진 중남미의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는 매년 1억 톤 가량의 곡물을 생산하며, 농산물을 비롯하여 수산물, 가공식품, 제약,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땅입니다.

특히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의 주요 회원국인 아르헨티나는 한-MERCOSUR FTA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우리기업을 위한 신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.

이에 한국수입협회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과 공동으로 농수산물 및 제약, 의류 및 신발 관련 아르헨티나 8개 기업과의 화상비즈니스미팅을 운영합니다.

아르헨티나와 관련 품목에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사업개요

- (일시/장소) 2020. 7. 24(금) 오전 8:30~10:00
 -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(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206)
 - ※ ZOOM 을 통해 상담회 진행
- (현지기업)
 - 분야: 식품, 의류, 신발, 주방용품, 제약, 위생용품 등 8개 사
 - 사용언어: 영어

□ 신청 및 문의

- 국제협력실 김영문 과장 terry@koima.or.kr 02-793-2465
- 조연주 대리 jessie@koima.or.kr 02-6677-3664